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부당 내부거래 척결의 당위성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친인척 또는 제3자 매각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한국경제가 1997년 IMF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를 맞은 것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땅따먹기」 확장경쟁과 아울러 재벌들이 친인척 관련기업과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던 점도 상당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당 내부거래는 주로 재벌들과 재벌 친인척 또는 퇴직 임직원이 경영하는 관련기업들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재벌오너의 친인척 먹여살리기 차원에서, 일부는 사실상 계열관계인 위장 계열사 지원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사업합리화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분리해 독립시킨 관계기업이 사실상 위장 계열사인 경우가 많고, 이는 곧바로 부당 내부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친인척 관계기업 또는 위장 계열사는 재벌 또는 모기업과의 거래시 항상 특혜를 동반해 경쟁기업을 따돌리기 일수이고,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어음보다는 현금결재를 한다던가, 불량제품이 나와도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주고, 턱없이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즉, 자유시장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특수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 내부거래는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경쟁기업, 모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품질과 가격을 도외시한 구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래행태라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부당 내부거래 및 한국적 접대관행이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스스로 몸담고 있는 회사에 손해가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왜 저품질의 제품을 고가에 구매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학산업도 부당 내부거래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학제품이 기초소재이고, 투자 및 제품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화학제품의 특성상 제조 및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수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안정적으로 내부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162개 관계기업 중에는 화학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다. 변칙적인 자금지원이나 금융거래를 제외하더라도 화학제품 구매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친족기업이나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현대, 삼성, LG, SK 등은 화학제품 관련 친족기업이나 위장 계열사를 모두 거느리고 있고, 구매의 상당부분을 이들 친족기업이나 위장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질 좋은 화학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해도 도저히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중소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친족기업 또는 위장 계열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화학기업 중 부당 내부거래의 대표주자가 고려화학이다. 고려화학은 현대그룹의 친족기업으로 초기부터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계열사 공급물량을 독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배타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현대 계열사 공급물량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고려화학이 독점적 공급권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음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려화학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페인트기업이 정상의 위치를 차지했을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한국 페인트·코팅 시장이 오늘날과 같은 낙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및 선박용 도료 제조기술은 모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국제화 시대에 외국진출은 꿈꿀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 척결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특효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해둔다.